

오성 재사용 기구류 재처리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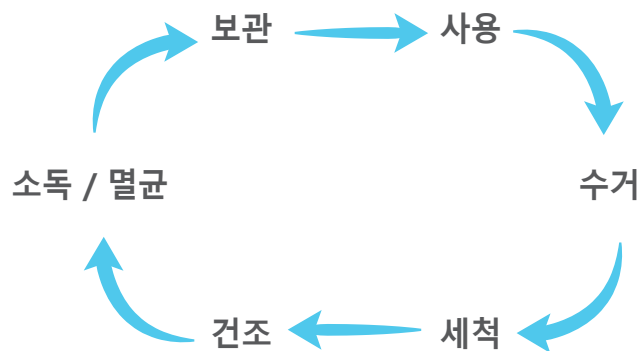
1. 기구 분류 및 관리방법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접촉부위에 따라 관리하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여야 한다.

| 구분 | 정 의 | 해당되는 오성 기구 | 권장사항 |
|-------|--|--|-----------------|
| 고위험기구 | 멸균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수동식의료용치석제거기, 재사용가능치과용칼, 의료용 절삭기구, 수동식의료용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등 | 멸균 |
| 준위험기구 |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세균의 아포는 허용된다 | 치경, 치과용아말감충전기, 치과인상채득용트레이 등 |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 |
| 비위험기구 |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을 사멸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 - |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 |

*치과기구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체액 및 호흡기 분비물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화학적 소독이 권장되지 않으므로 매 사용 후 멸균을 권장한다.

2. 기구 재처리 과정



1) 일반사항

재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개인보호구(장갑, 가운, 보안경, 마스크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재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수거

사용하고 난 기구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히 수거되어야 한다. 날카로운 기구, 버 등을 다룰 때는 반드시 병원 내 관리지침에 따라 수거한 후 폐기하여 수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감염노출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진료실 내에서 사용된 오염된 기구를 회수할 경우 카세트의 뚜껑을 덮어 이동해야 하며, 병원 내 멸균실 관리 지침에 따라 오염기구와 멸균기구의 이동하는 동선은 분리되어야 한다.

3) 세척

기구는 사용한 후 가능한 빨리 세척해야 한다. 만약 세척을 빨리 할 수 없는 경우, 오염물이 기구에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물에 담가 놓는 등 건조되지 않도록 하며 생리식염수는 부식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척제는 페놀이 함유되지 않은 비 부식성 중성pH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세척제가 남아있을 경우 소독 및 멸균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교착부가 있는 제품의 경우, 모든 교착부를 완전히 열고 세척해야 한다.

세척 후 기구의 이물질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재세척해야 한다.

손 세척 시 직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초음파세척기는 육안으로 보이는 큰 오염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1차 오염제거 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세척과정에서 기구 표면의 손상이나 부식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리부서로 의뢰한다.

4) 건조

세척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소독/멸균

(1) 소독

준위험/비위험기구는 높은/중간/낮은 수준의 소독제를 선택하여 소독을 시행하고 충분한 헹굼 및 건조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치과기구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체액 및 호흡기 분비물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화학적 소독이 권장되지 않으므로 매 사용 후 멸균을 권장한다.**

(2) 멸균

오성 기구 권장 멸균 조건: 고압증기멸균 134°C에서 5분간 멸균, 30분간 건조

멸균 시 설비 제조회사의 멸균방법과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6) 보관

소독/멸균된 기구 보관 장소는 출입이 제한되며 환기가 잘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 멸균기와 멸균날짜를 적어 두어 선입선출의 기준에 따라 먼저 멸균된 기구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기구 보관 포장에 손상이었다면, 소독/멸균한 기구들을 다시 세척하여 포장한 후 재멸균하여 보관한다.

문서작성연월: 2018.09.07.(Rev.00)